

		<h1>보도자료</h1>			
					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	총 1쪽	
배포일자	2022. 1.14.(금)	담당부서	산림병해충방제과		
담당과장	과장 정종근 (042-481-4174)	담당자	사무관 이종화 (042-481-4086)		

## 소나무재선충병은 초기 예찰과 철저한 방제가 핵심

- 경상북도·안동시와 방제에 총력 다하기로 -

- 산림청(청장 최병암)은 경상북도(도지사 이철우), 안동시(부시장 이상학)와 함께 1월 14일 소나무재선충병이 많이 발생한 안동지역에 대해 항공예찰을 실시하고 도청 회의실에서 피해 확산 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.
  - \* 피해고사목(전국) : ('17.4) 99 → ('18.4) 69 → ('19.4) 49 → ('20.4) 41 → ('21.4) 31만본
  - \* 피해고사목(경북) : ('17.4) 31 → ('18.4) 19 → ('19.4) 15 → ('20.4) 13 → ('21.4) 11만본
  - \* 안동시 피해현황: ('19.4) 32천본 → ('20.4) 28천본 → ('21.4) 27천본
- 그동안 피해목이 줄어왔으나 경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피해목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임업진흥원의 예측에 따라 이날 긴급하게 항공예찰과 대책회의를 실시하였다.
- 안동지역은 재선충병 피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로 산림청은 경상북도, 안동시와 협력을 강화하여 안동지역 재선충병 방제 품질을 높이고 확산을 차단하여 피해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.
  - \* 안동시 피해현황: ('19.4) 32천본 → ('20.4) 28천본 → ('21.4) 27천본
- 회의에서 최병암 산림청장은 “전국의 재선충병 피해목은 그동안 지자체의 노력으로 많이 줄었지만, 전국적으로는 피해발생지역이 확대되고 있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때다.”라며, “재선충병은 초기 예찰과 철저한 방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방제기간동안(전년도 10월~차년도 3월)

도지사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.”라고 말했다.



붙임파일 : 없음  
첨부파일 : 사진